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제목 [보도자료]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차 공천반대 명단 발표

날짜 2024. 2. 19. (총 4 쪽) (별첨자료 60 쪽)

보도자료

“이런 사람은 국회의원 공천 안 됩니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차 공천반대 명단 발표

반개혁 입법 추진, 자질 미달, 정부 실정에 책임 있는 후보 등 35명
선정

일시장소 : 2024년 2월 19일(월)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7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는 오늘(2/19) 21대 국회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35명의 1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이번에 발표한 35명의 공천반대 명단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 투표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정당의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촉구하여 반개혁적이거나 정부 실정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않도록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 2024 총선넷은 1월 31일 출범과 동시에 △21대 국회에서 기후와 환경, 평화와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복지노동의료, 민생경제 등 각 분야에서 개혁을 후퇴시키고 저지하거나, 반개혁적인 입법·정책을 추진해온 후보자, △인권침해나 차별혐오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대통령실 및 장관 등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정부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 등 부적격 후보 기준을 제시하며 각계각층에 공천반대 명단을 제출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1월 31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2주간 기후환경, 의료복지, 민생경제, 종교, 역사 등의

부문에 10여개 연대기구 및 단체에서 총 89명의 명단이 모였습니다. 2024 총선넷은 각 연대기구 및 단체가 제출한 명단 중에서 △선정사유가 중대하고 형평성에 맞는지 △반개혁 정책 추진 및 개혁 저지 과정에서 해당 후보자의 책임이 크거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여러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 등의 기준을 가지고 치열한 내부 논의를 거쳐 35명의 1차 공천반대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3. 2024 총선넷이 선정한 공천반대 후보자 35명은 강기윤(경남 창원성산구),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김병욱(경기 성남분당구을),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김희재(전남 여수시을),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박성중(서울 서초구을), 박완주(충남 천안시을),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박진(서울 강남구을),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신현영(비례), 유경준(서울 강남구병),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 유의동(경기 평택시을), 윤두현(경북 경산시),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이명수(충남 아산시갑), 이원욱(경기 화성시을), 이종성(비례), 이현승(부산 진구을), 임이자(경북 상주문경시), 전해숙(서울 광진구갑), 정진석(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주호영(대구 수성을), 추경호(대구 달성군), 태영호(서울 강남구갑 → 서울 구로구을), 하태경(부산 해운대구갑),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입니다.
4. 각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26명, 더불어민주당 7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반개혁 법안을 다수 발의하고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역대급 세수펄크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가장 많은 단체(6회)로부터 공천 부적격 후보로 지목되었고, 의료민영화, 환경악법 등을 발의하고 수해 지역 봉사활동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와 같은 막말을 일삼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4회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3회 이상 공천부적격 후보자로 제안된 의원이 8명(김기현, 김병욱, 박덕흠, 신현영, 윤상현, 이종성, 임이자, 정진석, 주호영), 2회 이상 제안된 의원이 14명(김용판, 김희재, 박대출, 박성중, 박완주, 배현진, 유경준, 윤두현, 이원욱, 임이자, 정청래, 조경태, 태영호, 하태경)으로 나타났습니다.
5. 2024 총선넷은 각 정당에 1차 공천반대 명단을 전달하고, 해당 정당들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당적이 있는 34명을 공천에서 제외하는 한편, 보좌관 성추행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어 현재 무소속인 박완주 의원에게는 총선에서 불출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미 공천이 확정된 박대출(경남 진주갑),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정진적(충남 공주부여청양군), 태영호(서울 구로구을) 의원에 대해서는 이유로 공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6. 총선넷은 다가올 총선에서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를 심화시키고, 인권과 민주주의, 언론과 역사를 후퇴시키는 한편, 민생경제와 공공정책을 후퇴시키는 입법정책을 추진한 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인권, 민주주의는 더욱 퇴보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이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공천반대 명단에 포함된 35명의 의원이 공천을 받고 당선되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1차 공천반대 명단은 총선넷 홈페이지와 각 연대기구,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SNS를 통해서도 적극 알릴 예정입니다. 2월 마지막 주에는 1차 명단에서 누락된 현역의원과 원외인사를 중심으로 2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끝

■ 첨부자료1. 기자회견 진행안

■ 별첨자료1.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차 공천반대 명단 [[본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및 공천반대 명단은

2024총선넷 및 개별단체 홈페이지와 SNS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 총선넷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act4hope>
- 2024 총선넷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2024act>
- 2024 총선넷 홈페이지 : <https://www.2024act.net>

■ 첨부자료1. 기자회견 진행안

- 제목 : “이런 사람은 국회의원 공천 안 됩니다!”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차 공천반대 명단 발표

- 일시 장소 : 2024년 2월 19일(월)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진행안
 - 발언1. 1차 공천반대 명단 발표 경과와 기준, 선정방식 설명

- : 이지현 2024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2. 1차 공천반대 명단 발표 (1)**
 - : 김성달 2024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경실련 사무총장)
- **발언3. 1차 공천반대 명단 발표 (2)**
 - : 정규석 2024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 및 상황실장)
- **발언4. 부문별 공천반대 취지와 보완설명**
 - : 신미희 2024 총선넷 운영위원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사회** : 김주호 총선넷 공동사무국장

●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참여단체 (2/19 현재)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전국먹거리연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공동행동, 재벌개혁과정제민주화실현을위한전국네트워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준)총선주거권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전국 19개 연대기구)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금융정의연대, 기후위기기독교연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노년유니온,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한은퇴자협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여성환경연대,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익산참여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년유니온,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포항환경운동연합,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망해남21 (전국 77개 단체)